



국화꽃처럼 예쁜 섬 ‘국화도’

국화도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남서쪽으로 28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섬으로, 공평항(화성시 서신면)에서 배를 타고 40분이면 들어갈 수 있다. 작은 섬으로 해안 둘레길과 능선 숲길을 모두 걸어도 여유 있게 3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예전에는 꽃이 늦게 피고 진다고 해서 만화도라고 불렀으나 나무로 취사와 난방을 하던 시절, 국화도의 나무를 다 베어내게 되자 그 자리에 야생 들국화가 많이 피 육지에서 바라보면 바다에 노란 들국화가 핀 듯한 형상이라고 해 국화도라 불리게 됐다.

장고항이나 왜목마을에서 바라보면 국화도와 형제처럼 나란히 토끼섬이 보인다. 500m 정도 떨어진 국화도와 토끼섬 사이에는 썰물 때에 갯바위와 모래밭이 드러나 걸어서 건널 수 있다. 이 바닷길 주변에는 고둥을 비롯한 각종 조개가 풍부하다.

국화도는 본섬인 국화도 이외에도 부속 섬으로 무인도인 북쪽의 매박섬과 남쪽의 도지섬이 형제처럼 붙어 있다. 이들 새끼 섬들은 만조 때는 독립된 섬으로 있다가 썰물이 되면 바닷물이 빠져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 ‘모세의 기적’이 이곳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소박한 어촌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국화도의 북쪽에 위치한 매박

섬(토끼섬)은 바지락·대수리·고동 등이 많이 서식하며, 남쪽에 위치한 도지섬은 조약돌과 조개껍데기로 풀등을 이루고 있어 조개를 잡거나 바지락 체험, 좌대 낚시, 건강망 체험을 할 수 있다

국화도에는 조개껍데기와 모래가 적당히 어우러진 천혜의 해수욕장이 활처럼 동그랗게 펼쳐져 있다. 해수욕장은 경사가 심하지 않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모래와 자갈한 자갈이 섞여 있어 서해의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매우 맑은 게 특징이다.

해안의 서쪽은 경사가 심하고, 남서쪽에는 해식애와 파식대가 있다. 암석은 엷리 구조를 보이는 호상 편마암, 반상변정질편마암, 석회규산염암으로 구성됐다. 특히 섬의 서쪽에는 면적이 넓은 소나무 군락이 섬을 온통 뒤덮고 있어 멀리서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화도는 여름 휴양지로도 우수한 곳이며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갯벌체험장이 있어 아이와 함께 고둥과 조개 등 다양한 해산물 잡이 체험이 가능하다. ▼



매박섬



국화도 전망대



국화도